



전주비전대, 제47회 비전체전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9일 제47회 비전체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48대 해양 총학생회 주관으로 축구, 농구, 줄다리기, 계주 등 총11개 종목이 펼쳐졌다. 더불어 인생네컷, 길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도 동시에 이뤄졌다.  
행사가 앞서 태권도체육학과 태권도시범단의 공연과,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국영재 총학생회장은 "다같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좋았고,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매년 진행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비전대 온 식구들이 대학의 이름처럼 비전을 갖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오늘처럼 한마음으로 한곳을 향하면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7회 비전체전은 9~10일 교내에서 진행된다. /장은성기자



정읍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계도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많은 운전자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5월 한 달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주위를 살피면서 정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의 비위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읍시 교통관리에서는 우회전 관련 규정 플래카드 및 전단지(홍보물)배포·교통안전 교육·캠페인·계도·단속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등을 통해 우회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은성기자



고창경찰, 영광기독신하병원 협조에 감사장 전달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8일 영광기독신하병원을 방문해 정신질환자 상담, 입원, 치료 등 경찰 업무에 협조한 관계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감사장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대민 팀장, 김문정 부팀장과 365일 24시간 언제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경찰 및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 영광기독신하병원 김경옥 이사장, 조미애 간호과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창경찰서에서는 정신질환의 이력이 있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자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영광기독신하병원에 보호조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 연계 시스템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정식 기자

‘정읍 발전 위한 뜻 깊은 기부’

허성준 가온조경 대표 500만원·박경희 전주병원 고문 200만원 등 고향사랑기부 이어져



정읍 발전을 향한 응원이 각계 각층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주)가온조경 건설의 허성준 대표와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의 박경희 고문은 지난 8일 정읍을 방문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전달했다.  
허성준 대표는 "정읍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금이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탁사에서 박경희 고문은 "이번 기부가 지역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이학수 시장은 "정읍 발전 위한 고향사랑기부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청소년 공작촌 운영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권역별 어린이집을 묶어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의 동참을 위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한승진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문헌인 농업회사법인 이름 한승진 대표이사(원예학과 75학번)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9일 전했다.  
한승진 대표는 "원예학과 후배들이 농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밀착형 교류 또한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문헌의 발전기금은 원예학과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무주 무풍면·설천면, 주민들 가정의 달 나눔 훈훈

가정의 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주군이 훈훈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풍면 (주)남일인터넷널(무풍면 소재, 천연목욕소금, 거품목욕제 생산 등) 입욕제 전문기업은 어린이 날을 기념해 무풍면 아천해지역 이동센터 이용 아동 22명에게 이소렐 사해소금이 함유된 플레이버블렌저를 선물했다.  
또 아천해지역이동센터 측은 단체 물놀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증정해 의미를 더했다.  
김우현 사장은 "복용제품이지만 놀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은 선물이지만 아이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같이 안겨줘야 한다고 전했다.  
무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성욱, 민간위원장 장 김준희) 위원들은 어린이 날을 기념해 무풍면 아천해지역 이동센터 이용 아동 22명에게 이소렐 사해소금이 함유된 플레이버블렌저를 선물했다.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지영, 민간위원장 장 전상호)에서도 가정의 달, 사랑 나눔 사업을 펼쳤다.  
한부모가족 등 127구에 66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으며 90세 이상 어르신 17명에게는 반려 식품과 물케이크를 전달, 안부를 살폈다. 또 또 위원이 기부한 쌀로 빵튀기기를 만들어 45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준희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건강기기를 전달하게 됐다"며 "무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이웃을 살피며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지영, 민간위원장 장 전상호)에서도 가정의 달, 사랑 나눔 사업을 펼쳤다.  
한부모가족 등 127구에 66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으며 90세 이상 어르신 17명에게는 반려 식품과 물케이크를 전달, 안부를 살폈다. 또 또 위원이 기부한 쌀로 빵튀기기를 만들어 45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식품·생활용품 지원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양인환 양재용 공동위원장)는 지난 8일 협의체 특화사업인 가정의 달 취약계층 식품 생활용품 지원사업인 '온정나눔, 행복다하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체 위원과 산내면 직원들이 관내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총 30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5만원 상당의 주방용품과 부식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양인환 회장은 "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상 관심을 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기부분화로 정성을 보내주시는 관내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튼튼혈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일환으로 4월 말부터 7월까지 읍·면 경로당 16개소를 대상으로 '튼튼혈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교실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형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4회기 운영되며, 현재까지 2개소 8회, 30명 참여했으며, 내용은 심혈관,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중증 및 치매예방교육 △구강관리, 영양관리, 금연의 건강생활실천 교육 △근육강화를 위한 건강체조 등 주민들의 밀착형·포괄적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검사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법,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체조 등 주민들의 밀착형·포괄적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보건팀 정희연 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보건팀 정희연 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탁구교실 초급과정 운영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고죽중)에서는 노인사회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초급과정)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탁구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신체기능 및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탁구 라켓을 잡고 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 스매싱 등 탁구의 다양한 자세를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공이 작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정말 힘들고 싫증도 났지만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배우고 있고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 재미가 붙었다"라고 전했다.  
복지관 김수진 담당자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영광기독신하병원 협조에 감사장 전달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8일 영광기독신하병원을 방문해 정신질환자 상담, 입원, 치료 등 경찰 업무에 협조한 관계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감사장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대민 팀장, 김문정 부팀장과 365일 24시간 언제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경찰 및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 영광기독신하병원 김경옥 이사장, 조미애 간호과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창경찰서에서는 정신질환의 이력이 있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자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영광기독신하병원에 보호조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 연계 시스템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정식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착한가게 14호점 현판 전달식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동장 소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 8일, 신촌동의 (유)서남빌리 베이티(대표 임일섭)에 착한가게 14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를 통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거나 기부를 원하는 분은 도동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나눔을 함께할 수 있다.  
서덕교 위원장은 "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신자 도동동장은 "착한 가게를 통해 동의 든든한 후원자로 동참하여 주민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치있게 나누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집수정으로, 빗물이 빠지는 첫 관문인 도로 집수정에 담배꽂이 등 쓰레기를 버리면 집수정의 배수 기능을 저하시켜 침수의 원인이 된다.  
침수 피해 예방과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정수 가능 확인과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과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을 이뤄냈다.  
김제시 관계자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하수관로 배수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빗물받이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가족이 함께하는 기억충전 행복여행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9일 양일간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억충전 행복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근거리 여행을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억충전 행복여행'은 전북 익산 왕궁 포레스트에서 진행됐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및 가족 40명이 참여했다.  
수목원 산책, 힐링 족욕 체험, 원예수업, 추억 앨범 촬영 등 치매가족의 휴식과 오감 자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기억충전 행복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여 즐거웠고 가족과 행복한 추억이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자